

26일 Market Index			
↓ 코스피 4949.59 (-40.48)	↑ 코스닥 1064.41 (+70.48)		
↓ 금리 (국고채 3년) 3.096 (-0.041)	↓ 환율 (원·달러) 1440.50 (-25.30)		

삼성·SK
낸드가격 인상 예고
합산 영업이익 250조
02



60조 加 잠수함 사업에 民官 ‘팀코리아’ 총력

〈캐나다〉

강훈식 등 방산 특사단, 출국

정의선·김동관·주원호 등 동행
정부 외교력·기업 역량 ‘공동대응’

한화그룹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외교와 산업을 결합한 ‘팀 코리아’ 체제로 현지 공략에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경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포함된 방산 특사단은 이날 오전 캐나다로 출국했다. 특사단은 잠수함 사업을 포함한 양국 간 방산 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한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일정에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주원호HD현대중공업합성·중형선사업부 사장 등 주요 민간 기업 경영진도 동행했다. 캐나다가 잠수함 도입과 함께 대규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등 정부의 캐나다 방산 협력을 지원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투자자와 산업 협력을 절충교역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 외교력과 기업의 산업 역량을 결합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쟁국인 독일 역시 폭스바겐그룹의 현지 자동차 공장 설립 등을 협력 카드로 내세운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1989년 캐나다 부르봉에 연산 10만대 규모의 생산공장을 설립했으나 4년 만에 철수한 전례가 있어 완성차 생산시설보다는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봇과 수소, 미래 모빌리티

등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 영역이 캐나다 측의 관심 분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역시 항공·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주전의 중심에 선 한화그룹은 이미 캐나다 현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최근 캐나다 법인 지사장으로 글렌 코플랜드 전 캐나다 해군 장교를 영입했다. 코플랜드 지사장은 캐나다 해군에서 22년간 복무한 뒤 록히드마틴 캐나다에서 할리팩스급 초계함 현대화 사업을 총괄한 인물이다. 한화는 캐나다 에너지 개발사 퍼뮤즈 에너지와 뉴펀들랜드-라브라도 지역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잠수함 건조 이후 유지·보수·운영(MRO)과 성능 개량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장기 협력 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면에 계속〉

/원래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93.93)보다 70.48포인트(7.09%) 오른 1064.41에 거래를 마친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폭죽을 터트리고 있다.

/뉴시스

코스닥 7% 상승 4년만에 ‘천스닥’

코스닥지수가 26일 ‘천스닥’(코스닥 지수 1000)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이날 70.48포인트(7.09%) 오른 1064.41에 마감했다. 이는 2004년 코스닥 지수체계 개편 이후 최고치다.

지수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거래소는 오전 9시 59분 코스닥 150선물가격이 전장 대비 6.29%(105.10포인트), 코스닥 150 현물지수가 108.85포인트 각각 급등하자 5분간 매수호가 효력을 정지시켰다.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6% 이상, 현물지수가 3%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된다.

지수 급등에 ‘사이드카’ 발동

정부, 핵심 기술기업 활성화 성과
기관·외국인 총 3.2조 이상 매수

시장에서는 코스닥 강세를 정부 정책과 맞물린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지난 22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닥 3000’ 달성안을 제안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부실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하고, 인공지능(AI)이나 우주, 에너지 같은 핵심 기술기업의 기업공개(IPO)는 활성화하는 등의 육성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벤처·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하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까지 더해지며 코스닥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코스닥 3000’ 발원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곳은 기관 투자자다. 이날 기관 투자자는 하루에만 2조6000억원 규모 코스닥 주식을 사들였다. 기관이 코스닥 주식을 하루에 2조원 넘게 사들인 것은 이례적이다. 외국인도 6000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3조1000억원 규모 넘게 순매도했다.

연초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자동차 등 코스피 대형주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코스닥 내 비중이 높은 2차전지와 바이오 업종으로 매기가 쏠리는 ‘순환매’ 장세도 뚜렷하다.

/신하은 기자 godhe@

“약가제도 개편 ‘근본적 설계’ 위한 속도조절 필요”

정부, 내달 의결 7월 본격시행 예정
업계 “국민에 신뢰 얻는 정책 기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약가 인하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약가 인하의 속도 조절과 인하폭 조정 등 신중한 정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국민의힘 백종현·한지아·안상훈 국회의원 공동 주최

로 열린 ‘약가제도 개편안’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오는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을 최종 의결한 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산정 비율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축사를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조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가치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근

본적인 제도의 설계”라며 “쟁점을 차분히 점검하고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약가제도 개편 과정에 충실 반영되어 성급한 제도 시행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참여 단체와 소속 기업이 연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시점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골든 타임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산 신약 41개, 파이프라인 수 세계 3위 3233개, 기술수출 20조원 돌파 등 그간 축적한 성과와 신약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고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진입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측은 “다만 이러한 성과에는 국산 전문의약품 매출이 기반이 되어왔고 이러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경쟁제한 우려” SK렌터카-롯데렌탈 기업결합 ‘불허’

공정위 “렌터카 요금인상 우려
중소 경쟁사 퇴출도 예방한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퀴티 파트너스 리미티드(이하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지분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전면 불허했다. 어피니티는 이미 SK렌터카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가 동일한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25일 “본 건 결합은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렌터카 요금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행태적 조치로는 경쟁제한 폐해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결합 금지라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병건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사진)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간 결합으로, 시장 구조상 영향

이 매우 큰 특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대여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구분해 각각 심사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2024년 말 기준 내륙 29.3%, 제주 21.3%의 합산 점유율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3%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부분 1% 미만의 영세 중소사업자들이다.

공정위는 양사가 자금조달 능력, 브



랜드 인지도, 전국 영업망과 IT 인프라, 차량 정비·중고차 판매 연계 등에서 중소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어 “서로를 제외하면 사실상 유호한 경쟁 상대를 찾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 국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결합이 이뤄질 경우 대기업 1개사 대 다수 영세 중소기업체”라는 양극화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가장 가까운 경쟁자 간 경쟁이 소멸되면서 가격 인상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김경, 서울시의회 윤리위 하루 앞두고 사퇴… “처벌 달게 받겠다”
▲조국 “당정청 조율 더 신경 써야”…홍익표 “제3당 역할 중요”
/사진 뉴시스

▲김어준 ‘金총리 서울시장 여론조사 빼달라’ 요청에 “내가 알아서 하겠다”
▲與 “코스닥 1000 돌파 뜻깊은 성과…‘3000스닥’ 위한 제도 개혁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박근혜로 단식 종결…어떻게 비용 부담할 건가”
▲국힘 최고위서 ‘한동훈 지지’ 집회에 “적절한 조치 필요” 우려 나와